

# 또 터진 人災...건설업계, 중대재해법 완화 요구 '쏙'

### 27일 시행 앞두고 건설업계 당혹...“완화 요구 목소리 힘 잃어” 더 강한 규제 나올까 걱정...공사기간 늘어나는 등 어려움 가중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신축 공사중이던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건물 붕괴사고로 건설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장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사고가 발생하면 그동안 관련 법 등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던 건설업계의 주장이 힘을 잃고 있어서다. 여기에 규제 완화는커녕 오히려 규제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그로 인한 공사기간의 증가 등 어려움이 깊어질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어질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13일 건설업계를 비롯한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법안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를 비롯한 산업계에서는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처벌 대상이 모호한 데다, 과도한 처벌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최근 지난해 광주시 동구 학동에서 발생한 건물붕괴 사고에도, 이번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건물 붕괴 사고까지 터지면서 건설업계의 주장은 힘을 잃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완화를 요구해온 상황에서 이번 사고가 터져 더 이상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어진 게 사실이다”며 “국민들의 분노가 커진 현 상황에서 규제 완화를 요구할 수도 없고, 명분도 약해졌다. 자칫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의 고민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이 건설업계에 오히려 더 강한 규제를 내놓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광주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

지 않도록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안전사고에 대한 건설업계의 책임을 더 가중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어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이 갈수록 고령화되고 외국인 근로자 비율도 높아 안전의식도 부족한 상황이다”며 “사업주가 현장의 안전사고를 통제하는데 분명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을 현실에 맞게 손을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야 할 시기에 이번 사태가 터져 당혹스럽다. 오히려 관련 법이 더 엄격해져 업계가 위축될까 염려스럽기도 하다”고 우려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꽃다발로 마음 전하세요” 13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이 지하 1층 ‘아네트’ 매장에서 졸업 시즌을 맞아 다양한 꽃다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쇼핑 제공>

## 광주·전남 지난해 무역수지 139억 달러 흑자...전년비 44% ↑

### 지난 12월 12억4100만달러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수출이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138억95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2021년 12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광주·전남의 수출은 전년 대비 43.9% 증가했다. 수입 역시 52.2%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138억9500만 달러 흑자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한 달만 보면 광주·전남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46.2% 증가한 56억7600만 달러였

다. 수입은 72.3% 증가한 44억3500만 달러, 무역수지는 12억41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지난달 광주지역 수출은 수송장비와 반도체가 견인했고, 전남지역은 화공품과 석유제품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광주의 12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7.7% 증가한 15억6800만 달러, 수입은 15% 증가한 7억15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8억5300만 달러 흑자였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수송장비(46.3%)·반도체(39.9%)·가전제품(0.1%)은 증가한 반면, 기계류(13.5%)·타이어(7.2%)는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16.8%)·고무(68.0%)·가전제품

(19.3%)·화공품(16.0%)은 증가했고, 기계류(4.2%)는 감소했다.

전남은 지난달 수출이 전년 대비 54.8% 증가한 41억800만 달러, 수입은 90.6% 증가한 37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3억8800만 달러 흑자였다. 품목별로는 화공품(46.1%)과 석유제품(66.5%)·철강제품(78.3%)·수송장비(28.1%)·기계류(4.4%) 등 수출이 모두 증가했고, 수입은 원유(77.7%)·석탄(189.3%)·철광(95.8%)·석유제품(151.5%)·화공품(49.3%)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 광주전남중기청 2월9일까지 수출 마케팅 등 맞춤형 연계지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2월9일까지 '2022년도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글로벌 강소기업은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에 발굴해 중기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유관기관이 함께 수출 선도기업과 지역주도 대표기업으로 육성을 지원하는 수출 중소기업 지정제도이다.

올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중기부, 지자체, 민간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수출마케팅, 지자체 자율지원, 대출금리 우대 등 맞춤형

연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요건은 전년 매출액 100억~1000억원 미만으로 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12개 기업을 지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광주전남중기청은 지난해 광주 2개사와 전남 7개사 등 총 9개 기업을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하고, 해외마케팅 지원프로그램 및 지자체 지원프로그램 등 글로벌강소기업만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주택연금 월지급금 평균 0.7%씩 오른다

### 2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

### 가입연령·주택가격 따라 적용

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1일 이후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가 받는 월 지급금이 기존보다 평균 0.7% 오른다고 13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기대여명 변화 등을 고려해 연 1회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적정액을 재산출하고 있다.

이번 지급금 상승은 전년 대비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아진 점을 반영했다. 다만, 이자율 상승과 기대여명 증가가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을 일부 상쇄했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지급금 조정 폭은 가입연령 및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주택가격 9억원 기준 55세 가입자가 받게 되는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기존 144만원에서 145만원으로 10만원(0.7%) 오른다. 같은 주택가격 기준 70세 가입자의 월 지급금은 267만5000원에서

275만6000원으로 81만원(3.0%) 상승한다.

특히 소득세법 개정으로 지급금 산정 시 반영되는 주택가격 인장 상한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 중 일부는 지급금 상승 폭이 추가로 커진다.

주택연금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만 해당하지만, 연금 지급금은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탓에 일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그동안 9억원 기준 월 지급금을 적용받았다.

조정되는 월 지급금은 2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는 주택가격 등락과 관계없이 가입 당시 산정된 월 지급금이 동일하게 지급된다.

/연합뉴스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